가수 김종민, PD 이경규, 개그맨 정범균, 작사가 유재환, 아나운서 김주희, 배우 한철우

이경규, PD 도전 "나이 먹으니 연출 욕망 꿈틀"

MBC에브리원 'PD 이경규가 간다'서 기획·연출·출연 … '마리텔' 화제 애견 '뿌꾸' 분양기

"버라이어티 오래 하면 연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능계의 대부로 불리는 이경규(56)가 PD로 변신했다.

이경규는 MBC에브리원의 새로운 예능프로그램 'PD 이경규가 간다'에서 TV 프로그램 기획자이자 PD로 변신해 직접 기획, 연출, 출연까지 맡는 1인3역을 한다.

이경규는 7일 서울 여의도 IFC몰 CGV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영화 제작발표회 할 때보다 더 긴장되는 거 같다"고 PD 데뷔 소감을 밝혔다.

예능 PD 역할을 맡게 된 데 대해서는 "MBC 예능국에 있다 MBC에브리원 이사로 간 김정욱 PD와 식사를 하면서 버라이티 프로그램은 이렇게 만드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비판했더니, '그럼 니가 한번 해봐라'고 해서 시작이 됐다"고 소개했다.

이경규는 이어 "막상 해보니까 괜히 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프로그램 하나 하는데 다섯 개를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나이를 먹으니까 출연보다 연출에 대한 욕망이 몸속에서 꿈틀하고 있었다"며 "제가 생각했던 대로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을 연출하기 위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촬영하고 있다"고 의욕을 보였다.

그는 "PD가 돼 보니까 역지사지로 PD의 마음을 헤아리게 됐다"며 "왜 그렇게 오래 찍는지 알겠다"고 했다.

이경규는 "오락프로그램이 관심을 받는 시대가 올 거라고 10년 전부터 생각했었다"며 "다채널 시대가 되면서 포맷을 너무 많이 소비했기 때문에 다큐멘터리 스타일로 가지 않을까 했는데 앞으로도 많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예능에 대한 지론을 설명했다.

벤치마킹하는 PD가 있느냐고 묻자 "'양심냉장고', '이경규가 간다' 등을 함께 했던 동갑내기 김영희 PD가 가장 많이 생각난다"고 답했다.

그는 "나이 먹으면서 체력이 많이 떨어지는데 끝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 같다"면서 "힘이 있을 때, 건강할 때 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고 각오를 피력했다.

그는 또 "다큐멘터리와 극영화를 제작할 생각이 있다"면서 "내년에 영화로 찾아가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PD 이경규가 간다'에는 가수 김종민, 개그맨 정범균, 배우 한철우, 아나운서 김주희, 작사가 유재환이 고정 출연진으로 호흡을 맞춘다.

36년차 예능인 이경규의 PD 데뷔작은 자신의 애견 '뿌꾸'가 서울, 김포, 안동 등으로 분양돼 새로운 가족들과 지내는 새끼들을 만나러 가는 여정을 담은 '뿌꾸 극장'이다.

이경규는 지난 3월 MBC TV 예능프로그램 '마이 리틀 텔레비전'에 '뿌꾸'와 6마리의 새끼를 데리고 나와 화제를 모았다.

이경규는 촬영하면서 폭염 속에 벌에 쏘이기까지 하는 등 신고식을 단단히 치렀다. 'PD 이경규가 간다' 첫 회에서는 '뿌꾸 극장'과 파란만장한 제작 과정을 보여줄 예정이다. /연합뉴스

김제동, SBS '미운 우리 새끼' 하차

"바쁜 스케줄 때문에 …"

방송인 김제동(42·사진)이 SBS 예능 프로그램 '다시 쓰는 육아일기-미운 우리 새끼' 출연진에서 빠진다.

김제동의 소속사인 아침별 관계자는 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제동 씨는 이번 주 방송되는 3회까지만 출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원래 파일럿(시범제작)에만 참여하기로 했는데 당시 촬영했던 미방송분을 3회에 내보내는 것"이라며 "일정이 바빠 추가 촬영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운 우리 새끼' 곽승영 PD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곽 PD는 "외압 같은 건 전혀 없었다"며 "제동 씨가 너무 바빠 촬영 스케줄을 맞추기 힘들어서"라며 "여건이 되면 다음에라도 출연을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출연진인 김제동이 정규 편성 후 방송에 등장하지 않자, 일각에서는 김제동이 최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시한 것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김제동은 지난달 5일 경북 성주에서 열린 '한반도 사드 배치 철회' 집회에 참가했다.

'미운 우리 새끼'는 신동엽-한혜진-서장훈이 MC를 맡고 김건모, 허지웅, 박수홍과 어머니들이 출연하고 있다. 오는 9일 방송되는 3회부터는 그룹 H.O.T 출신 가수 토니안과 토니안의 어머니 이옥진씨가 고정 출연자로 출연한다.

시청률 조사업체인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미운 우리 새끼'는 2회 시청률이 전국 7.2%, 서울 9.3%를 기록하는 등 초반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미운 우리 새끼'는 매주 금요일 밤 11시20분 방송된다. /연합뉴스

세븐·이다해 커플 절친에서 연인으로

동갑내기인 가수 세븐(본명 최동욱·32)과 배우 이다해가 친구에서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세븐의 소속사 일레븐나인과 이다해의 소속사 JS픽쳐스는 오랜 시간 '절친'이던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해 교제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일레븐나인 관계자는 "두 사람은 힘든 시기에 서로에게 힘이 되어 준 사이로 수개월 째 좋은 감정을 갖고 만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따뜻한 시선으로 응원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둘의 교제는 이미 지난해부터 목격담이 흘러나왔다. 당시 다수 목격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19일 오전 10시30분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부산행 KTX의 4호차 특실에 나란히 앉아 영락없는 연인의 모습을 연출해 주위 시선을 끌었다. 또 홍콩과 태국 등 동남아시아 여행을 다니며 스스럼없이 애정어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세븐은 다음 달 4년 8개월 만의 새 앨범 발매를 앞뒀다. 이다해는 중국 드라마 '나의 여신 나의 어머니'를 촬영 중이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00 강력추천 배틀 트립 30 2016 리우 패럴림픽 개막식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좋은 사람〉	30 KBC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30 생방송 오늘 아침	20 닥터365 30 아침연속극 〈사랑이 오네요〉
9	30 KBS 뉴스	00 TV소설 〈저 하늘에 태양이 〉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안녕 우리말 50 야생일기	00 일일드라마 〈여자의 비밀〉(재)	00 옥중화 (재)	00 닥터 365 05 토크콘서트 화통
12	00 KBS 뉴스 12		00 MBC 정오뉴스 20 수목드라마 〈불어라 미풍아 〉(재)	00 SBS 12 뉴스 50 닥터365 55 남도의 보물 100선 (재)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재) 05 KBS네트워크특선 보물섬 30 별별가족 (재)	00 수상한휴가(재)	30 2016 리우 패럴림픽	20 나홀로 세계여행 2 55 TV블로그 꼼지락
2	00 가요무대 (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00 세상발견 유레카 55 닥터 365
3	00 이웃집찰스(재) 50 감성애니 하루 55 튼튼생활체조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00 MBC 뉴스 10 헬로키즈 아하! 동물탐험대 2 55 책갈피 요정 또보	30 3시, 뉴스브리핑
4	3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	25 워킹맘 육아대디	30 고향이 보인다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지오그래피	00 터닝메카드 W 30 2016 서울 드라마 어워즈	00 MBC 이브닝 뉴스	00 꼬마해녀 몽니와 해녀특공대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 15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7	00 KBS 뉴스7 35 추석기획 한국인의 밥상	50 일일드라마 〈여자의 비밀〉	15 일일연속극 〈다시 시작해〉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꼼지락 20 일일드라마 〈당신은 선물〉
8	25 일일연속극 〈별난 가족〉	30 글로벌24 55 비타민	5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눈	
10	00 KBS-CCTV 공동제작 〈임진왜란〉 55 숨터	00 KBS 특별기획드라마 〈함부로 애틋하게〉	00 수목드라마 〈W〉	00 드라마 스페셜 〈질투의 화신〉
11	00 KBS 뉴스라인 40 네트워크 특선다큐 〈코리언 헤리티지 백제정원 궁남지〉	10 해피 투게더	10 능력자들	10 자기야 - 백년손님
12	3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뮤직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30 MBC 뉴스 24 50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5:30 통일 미리보기(재)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재)
07:30 뽀롱뽀롱 뽀로로
07:45 꼬마버스 타요
08:00 딩동댕 유치원 1~3
08:45 Why - 최고다! 호기심딱지
09:00 주사위 요정 큐비쥬
09:15 시계마을 티키톡!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쥬
09:40 아버지의 귀환 〈위기의 남편들〉
10:3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비빔 당면과 찐만두〉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장수의 비밀
12:40 역사채널e
12:45 연중기획 - 미래를 여는 교육
13:40 스쿨랜드-한자왕국
13:50 그림을 그려요
13:55 출동! 슈퍼윙스
14:25 최강전사, 미니특공대(재)
14:55 모피와 친구들
15:05 두키탐험대
15:20 꼬마기사 마이크
15:35 요술상자
15:45 코코코다코
16:15 두다다쿵
16:30 Why -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16:45 딩동댕 유치원1~3(재)
17:30 뽀롱뽀롱 뽀로로(재)
17:45 꼬마버스 타요(재)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1~4
19:00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19:30 EBS 뉴스
19:50 다큐영화 〈길 위의 인생〉(재)
20:40 다큐오늘
20:50 세계테마기행 〈크로아티아 아드리아 해의 낙원 - 두브로브니크〉
21:30 한국기행 〈그리워라 어머니 밥상 - 내 마음의 집밥 ㅌ〉
21:50 EBS 스페셜 프로젝트 〈新 통과의례 - 건강통, 나이를 잊다〉
22:45 다문화 고부열전
23:35 글로벌 가족정착기 〈캐나다 아빠! 다둥이를 부탁해〉
24:05 세상의 모든 법칙
24:10 스페이스 공감 1.2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8일(음 8월 8일 癸巳)

子 48년생 당해 문제의 여건이 충족되어 가는 국면이로다. 60년생 제대로 살피지 않는다면 불리해진다. 72년생 낌새를 무시하지 말고 저변을 돌아보는 것이 기반을 튼튼히 하리라. 84년생 주거니 받거니 하며 박자가 잘 맞겠다. 행운의 숫자 : 84,72

丑 49년생 객관적 실상에 주목하여야 한다. 61년생 주변 환경이나 조건에 순응하는 편이 낫다. 73년생 머뭇거리다가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다. 85년생 중지를 모아서 대처하는 것이 실효적이고 유익하다. 행운의 숫자 : 08,77

寅 50년생 현 상태에서 바로 잡지 않는다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이다. 62년생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구성을 할 필요가 있다. 74년생 지나치다면 미달함만 못 하느니라. 86년생 임의적인 예단은 소모적일 뿐이다. 행운의 숫자 : 02,75

卯 51년생 과거에 알고 있었던 바대로 인식한다면 착오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63년생 성실한 이행은 성취의 길목으로 이끌기에 손색이 없다. 75년생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 87년생 진행 방향으로부터 장해 요인이 드러난다. 행운의 숫자 : 47,09

辰 40년생 변경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52년생 집중한다면 소기의 성과가 있으리라. 64년생 불합리하다. 76년생 절제가 꼭 필요하다. 88년생 징후를 무시한다면 사후에 발생하는 현상을 수습하기가 힘들어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90,39

巳 41년생 차분하게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53년생 현명한 판단이 잠재적 생산성을 강화시킨다. 65년생 귀찮을 것이다. 77년생 시간이 경과되며 차차 호전되리라. 89년생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한동안 머뭇거리게 된다. 행운의 숫자 : 51,88

午 42년생 충분한 여유를 둬야만 변화무쌍한 국량에 무리 없이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54년생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느니라. 66년생 진중하면 점진적인 발전을 이끌 것임에 틀림없다. 78년생 치밀하게 원인을 분석을 하자. 행운의 숫자 : 38,78

未 43년생 인정받을 수도 있는 기회이다. 55년생 탐스러운 결실이 열리기 시작하는 세계이니라. 67년생 편견에 사로잡힌다면 오류를 범하기에 충분하다. 79년생 폐단은 가급적 빨리 개선해야 새로운 영역을 확보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53,25

申 44년생 포괄적인 조처가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는데 일조할 것이니라. 56년생 입지를 좁히는 결과를 초래하지 말라. 68년생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야 할 단계에 와 있다. 80년생 한꺼번에 행한다면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행운의 숫자 : 23,36

酉 45년생 길함이 생기는 근원적인 계기가 마련될 것이니라. 57년생 행하면 능히 감당하리라. 69년생 현안이 쉽게 처리되는 장면이다. 81년생 참으로 어려울 때 우연히 협조자가 나타나서 물꼬를 트는 형상이다. 행운의 숫자 : 16,91

戌 46년생 형편대로 도모해야 무리가 따르지 않는 법이다. 58년생 서로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공동 작업은 가능하리라. 70년생 혼자서 임하는 것이 제일 낫겠다. 82년생 확신이 선다면 재지 말고 즉시 추진하자. 행운의 숫자 : 03,58

亥 47년생 하등에 우려할 바가 아니다. 59년생 획기적인 발전의 발판을 조성하게 될 것이니 기대해 볼만하다. 71년생 파격적인 방향으로의 선회가 시급한 시점에 이르렀다. 83년생 이상한 기류가 감지되겠다. 행운의 숫자 : 69,05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